

2018 Investor Relations

CAPEind Fact Sheet

2018.11

Disclaimer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현재의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입증자료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 개요

일반 현황

대표이사	정형석
설립일	1983년 12월 26일
생산제품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종업원수	154명
자본금	12,764백만원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41,000평)
홈페이지	www.cape.co.kr
시가총액	536억원(18.11.21기준)
발행 총주식	25,528,573주 (최대주주 등 지분을 28%)

CEO 및 사업부문



대표이사 정형석

약력

케이프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주)케이프 이사
(現) (주)케이프 대표이사

사업
부문

선박 실린더라이너

CAPEind

금융투자사



CAPE Investment

증권



케이프투자증권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개요

1983~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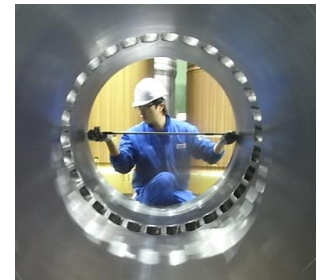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선박용 디젤엔진 부품판매대리점 지정
- 현대중공업/한국중공업/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지정
- 500만불 수출탑 수상
- 실린더라이너 제조공장 설립
- 대표이사 김종호 취임

1997~2010

- (주)케이프 상호변경
- 본사 이전 - 부산 남산동
- 양산공장 개설 및 설비 확충
- 2007년 코스닥 상장
- 본사 이전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주물공장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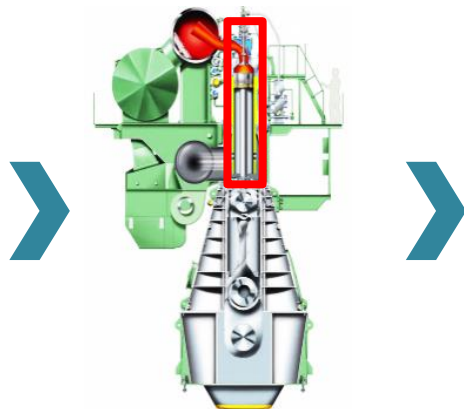
2010~현재

- 2012년 (주)소셜미디어구입구 상호변경
- 2012년 소셜게임 업체 소셜인어스 인수
- 2013년 (주)케이프인베스트먼트 종속회사 추가
- 2014년 현대중공업 제품 납품 시작
- 2015년 (주)케이프 상호변경
- 2016년 이니티움2016(주) 종속회사 추가
- 2016년 케이프2016(PEF) 종속회사 추가
- 2016년 LIG투자증권 종속회사 추가
- 2017년 케이프투자증권 사명 변경
- 2017년 정형석 대표이사 취임



실린더라이너(Cylinder Liner)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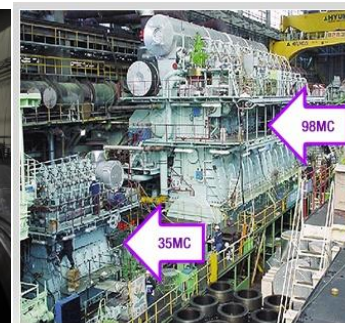
- 엔진 피스톤(piston)의 왕복운동 통로이자 실린더커버(cylinder cover)와 더불어 분사된 연료의 압축 및 폭발공간을 형성 (연소실: combustion chamber)



[엔진 단면도]



[실린더라이너]



2-STROKE 엔진(MAN B&W 타입)

고가의
소모성 교환품
(교체주기 5~7년)

과점시장

높은 진입장벽
(대형, 전문적
설비)

대형정밀제품
(내경 ~98cm,
무게 9t)

주문생산방식

제품 인지도 및
선주사 신뢰도

실린더라이너 생산 인프라

- 주물 공정부터 가공 공정까지 생산 일원화

Casting 주물 공정



- 12.5T 전기로 x 2,
- Capa 300T/day(국내 최대)



- 소재 투입



- 용해, 운반구로 이동



- 주물 틀 주입



- 냉각



- 주물 틀 해체

Casting 가공 공정



- 황삭 가공



- 소기홀 가공



- 냉각홀 가공



- 정삭 가공



- 보링, 태핑, 기타 홀
가공, 사상, 고압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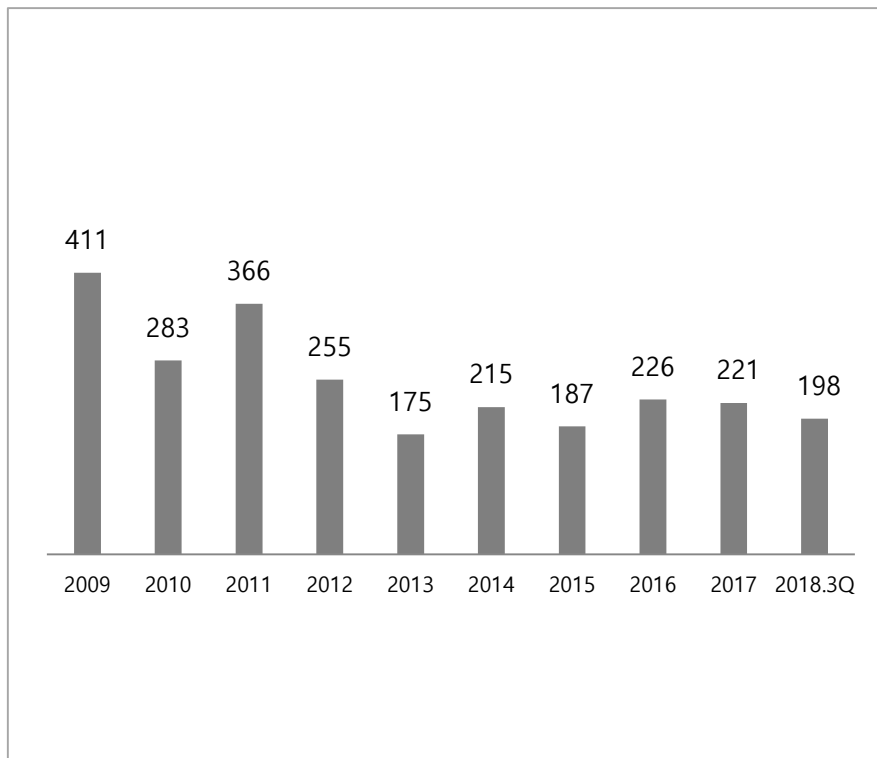


- 완제품 완성

실린더라이너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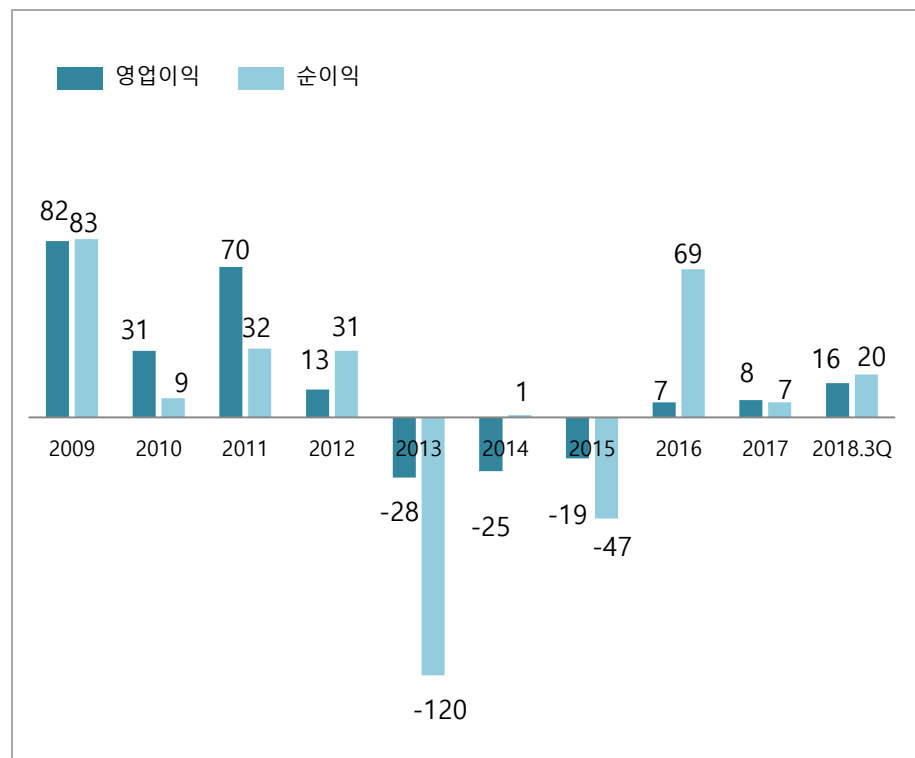
- 실린더 라이너 주문량 증가세, 현대중공업 소재 및 황삭 매출 시작
- 16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후 이익폭 확대

매출액(단위 : 억원)



※ 매출액은 개별 매출 기준임.

영업이익 및 순이익(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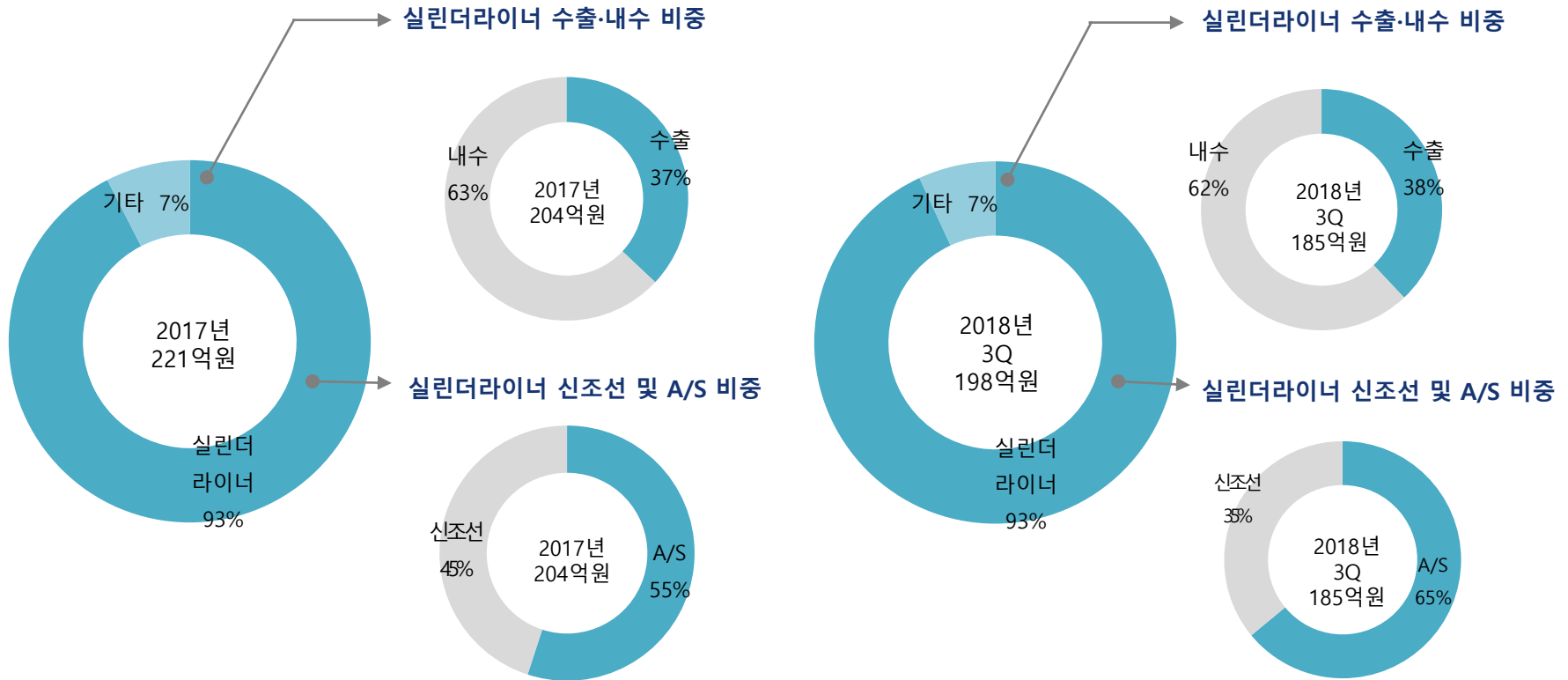


※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개별 기준임.

매출 구성

- 전체 매출액 중 실린더 라이너 매출 비중 93%
- 실린더 매출에서 수출 비중 38%, 신조선 및 A/S 비중에서 A/S비중 65%

개별 매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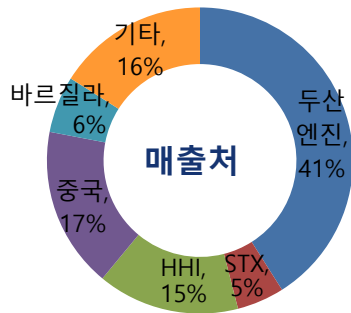


※ 매출액은 개별 매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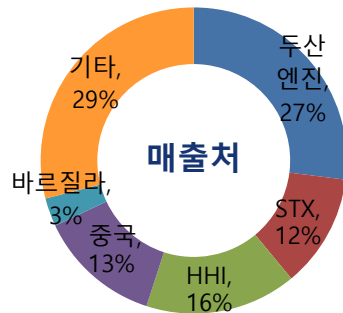
실린더라이너 매출처 구성

- 중국 수출 2014년부터 본격적 증가, 향후 중국 성장에 따른 수출 증대 예상
- 현대중공업 2014년부터 발생, 외주화 검토에 따른 수혜 예상
- 2018년 엔진라이선서 MAN 신규 공급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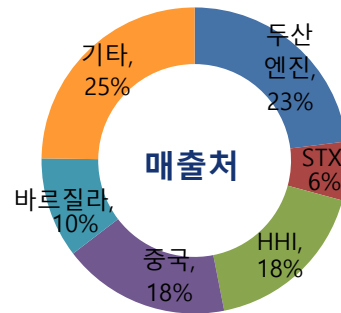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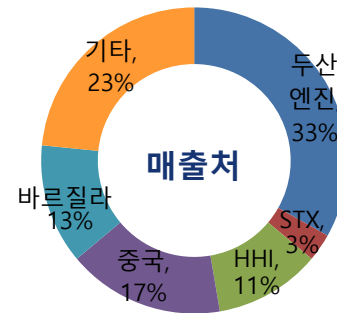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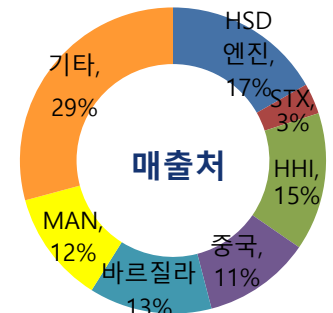
2016년



2017년



2018년 3Q



※ 매출처 비율은 개별 실린더라이너 매출액 기준이며, 당 사 실적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



중국 엔진빌더 현황

(2018. 09. 30현재)

국 영

CSSC(China State Shipbuilding Corp.)

Name	Type	Relationship	비 고
CMD	대형	Strong	합병
HUDONG	중/소형	Strong	

CSE (China Shipbuliding industry corporation disel Engine)

Name	Type	Relationship	비 고
DMD	대/중/소	Very Strong	합병
QMD	대/중/소	Strong	
YMD	중/소형	Normal	

수익 턴어라운드

- Clarkson Research에 따르면 선대 쇠신 및 시장 성장세를 따라 잡기 위하여 해운업계는 2014년부터 10년간 약 1.4조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 관측함
- 해운시장 운임의 상승세 및 신조선 가격 오름세 영향으로 선박 수주 증가세 지속 (Clarkson)

수익성 저하 요인

1. 신조선 물량에 의존



수익성 개선

1. 거래선 다변화(A/S 신규 확대)

2. 국제해사기구(IMO) 2020년 유해물질 배출규제 시행
 - 친환경 엔진 수요발생
 - 2020년 선령 20년 이상 선박, 전체 상선의 약 50% (46,000척, 클락슨리서치)

3. 국제해사기구(IMO) 2019년 9월 선박 평형수 설비 의무화 발효예정 - 5년간 40조 기대효과
 기존선박 5만 여 척 - 2024년 9월까지 설치완료 의무

‘환경 규제+물동량 증가’ 선박 발주 혼풍 분다...주요지표 상승 초기 ‘신호’

**규제 강화 시 노후 선박, 친환경 선박 교체 경제적
최대30% 선박 교체대상 ... ‘선박 공급과잉 내년에 해소’전
망도**

올해 9월부터 선박 평형수(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사용되는 바닷물) 규제가 시작되고 내년에 전 세계 물동량을자가 이동하는 양) 증가율이 선박량(船隻量·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 증가율이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선박 발주가 늘어날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선박 발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선박 공급 과잉 현상도 내년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년 물동량 증가율, 선박량 웃돌아 공급과잉 해소 기대

19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71만436CGT(선박 건조안티도)를 고려한 표준 화물선 환산 톤 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1만3624CGT보다 4.4% 늘었다. 척수는 179척으로 같다.

클락슨과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전년대비 선박량 증가율(공급)이 물동량 증가율(수요)을 웃돌아 선박 공급과잉이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발주가 과도하게 이뤄진 영향이다. 선박 공급과잉이 심해지면 운임이 낮아져 선박 발주를 꺼리게 된다.

올해 4월 까지 전 세계 발주 물량 중에서 한국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123만623CGT로 작년 같은 기간 18만6262CGT보다 크게 늘었다. 척수로도 작년 1~4월 10척에서 올해 같은기간 34척으로 증가했다. 선박별로는 유조선(원유·석유제품·화학제품 운반선 등)이 6척에서 22척으로, 가스선(LNG·LPG선)이 1척에서 10척으로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물동량 증가율이 선박량 증가율을 넘어서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물동량이 2.9% 증가하는 가운데 선박량 증가율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발주량이 전년의 30%수준에 불과한 1234만5130CGT에 불과해 선박 공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조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수주 물량은 더 많다. 각 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총 42척(25억달러·약2조8100억원)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6척(18억4000만 달러), 7척(7억7000만달러)을 수주했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물동량과 선박량 지표가 좋아지면 운임 상승이 예상된다”며 선수들은 2018년에 운임 상승 가능성을 보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4월 전 세계 발주 물량은 74만49620GT로 3월보다 21.3%, 척 수는 59척에서 28척으로 절반 이상 줄었지만, 한국업체들의 수주 물량은 3월 13만9118CGT(7척)에서 4월 33만 6158CGT(12척)으로 오히려 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업체가 강점을 가진 가스선과 유조선 발주가 늘면서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도 더 커질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인도량 기준 수주잔고 지표가 올라가면 조선사들의 배 가격 협상력도 올라가게 된다. 인도량 기준 수주잔고지표는 수주잔고를 인도량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몇 년치 일감이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래 일감을 충분히 확보한 조선사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계속 떨어지던 선박 가격이 이달 초 소폭 반등하면서 가격이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조선가 지수는 122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선가지수는 1998년 선가

를 100으로 잡아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든 선박값을 평균해 지수화한 것이다. 선가지수는 2014년 11월 139에서 계속 하락해 120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중조선가 지수도 86으로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현재 가격이 바닥인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새 배와 중고 배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가격 반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9월부터 평형수 규제...2020년 규제 본격화되면 최대 30% 선박 교체해야

선박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조선업체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조선업체들이 기다리는 환경 규제는 크게 두 가지다. 선박 평형수 규제와 선박 연료 황산화물(SOx)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춰야 한다는 규제다. 선박 평형수 규제는 올해 9월부터, 황산화물 규제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조선업체들은 강화된 환경 규제가 노후 선박 교체주기를 앞당겨 신규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사용하는 바닷물이다. 평형수는 출항할 때 배에 넣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출하는데, 평형수에는 해로운 세균이 섞여 있어 국가 간 해양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올해 9월부터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새 배는 건조 과정에서 이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배는 정기 검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황산화물은 대형 선박이 내뿜는 오염물질 중 하나다. 배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자동차의 수백 배에 달하기 때문에 항구가 많은 유럽은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황산화물 규제를 지키려면 저유황 연료를 쓰거나 탈황기(Scrubber)를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재 연료로 쓰는 벙커C유 대신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평형수 설치 장치를 새로 달거나 탈황기를 설치하면 비용을 회수하기 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은 아예 새 배로 교체하는게 경제적인 수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선종별로 20년 이상된 선박의 비용은 벌크선(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용선)이 9%, 유조선이 8% 등이다. 교체대상을 15년 이상 된 배로 확대하면 LPG 운반선은 24.9%, 원유 운반선 19.4%, LNG 운반선 16.8%, 석유제품 운반선 16.8%, 컨테이너선은 13.4%에 달한다. 전체 배로 보면 약 30%다.

이강록 교보증권 연구원은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선박 교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고 친환경 고효율 선박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9월 조선박 평형수 규제...조선·해운 득실 계산

조선, 신시장 창출에 기대감...해운, 설치비용은 부담

국내 조선·해운업계가 오는 9월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발효를 앞두고 득실 계산으로 분주하다. 조선업계는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의 설치와 친환경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반면 해운업계는 선박평형수 설비 설치 비용의 부담과 노후 선박의 폐선으로 인한 운임 상승 기대감이 상존한다.

21일 해양수산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9월8일부터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발효한다. 협약은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 한국선주협회가 회원사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해당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의 선박은 모두 126척이다. 향후 5년간 설치대상은 586척이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이용하는 물이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 선박 평형수를 넣고 빼는데, 매년 50억톤이 넘는 물이 옮겨진다. 국제해사기구는 이 물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에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를 의무화한 협약을 채택했다.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는 배출 전 미생물을 제거 또는 살균 처리하며, 평균 40만달러 정도의 설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양하시 : 평형수 주입(유해수중생물 유입) (2) 경하상태 운항시 : 평형수이동



(3) 적하시 : 평형수 배출(살아남은 유해수중생물 배출) (4) 만재상태 운항시 : 평형수 없음



국제해사기구(IMO)는 9월8일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를 선박에 의무화한 국제협약을 발효한다. 선박평형수 시스템 구조도. 그림/해양수산부

조선업계는 협약이 발효하면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와 노후 선박의 교체 주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예측한 국적선사의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 비용만 오는 2020년까지 3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세계 선박평형수 설비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은 독보적이다.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41개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중 16개가 국내 업체다. 일본과 독일이 각각 9개와 6개로 뒤를 잇는다. 협약이 발효되면 전 세계 선박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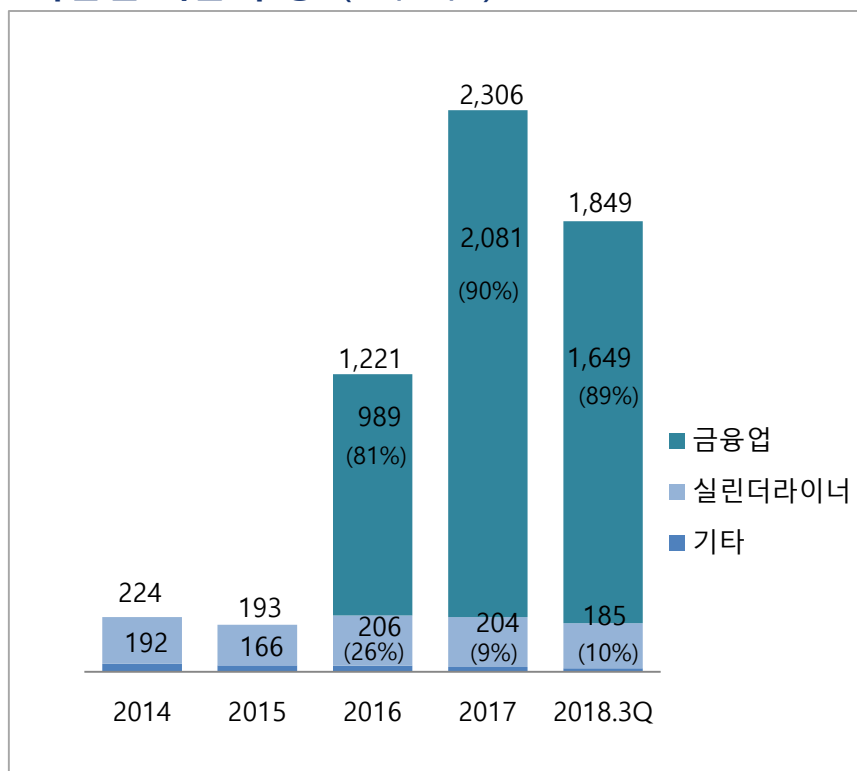
해운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 처리 설비 비용을 회수하기엔 5년여의 시간이 필요해 선령이 20년을 넘는 노후 선박의 폐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박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시켜, 하락했던 운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비용은 부담이다. 특히 장기간 해운 불황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아, 선사들은 관련 설비의 설치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도 새로운 시장이 될 전망이다. 선박 연료 가운데 황산화물의 비중을 현 3.5% 수준에서 최대 0.5%까지 낮춰야 해 친환경 선박의 발주량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3달 앞으로 다가온 환경 규제가 조선·해운 업계로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협약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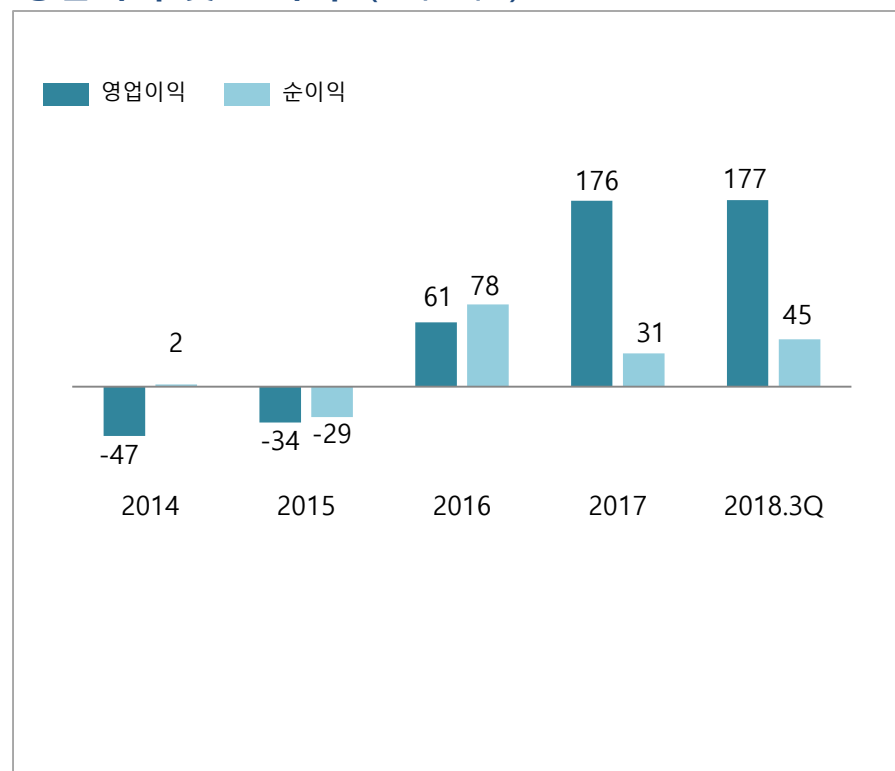
- 전체 매출액 중 금융 매출 비중 89%

기간별 매출 구성 (단위 : 억원)



※ 매출액은 연결 매출 기준임.

영업이익 및 순이익 (단위 : 억원)



※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연결 기준임.

케이프투자증권 회사 개요 (2018.09.30기준)



회사 개요

설립일자	2008년 6월 17일
대표이사	임태순
조직구성	부문 1, 본부 18, 지점 1, 팀 35
임직원수	252명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여의도동, 유수홀딩스빌딩)
홈페이지	www.capefn.com
자본금	1,700억원
최대주주	이니티움2016(주) (82.4%)
신용등급	A- (기업등급(장기등급), A2- (CP 및 전단채(단기등급))

회사 연혁

2008	06.17	법인 설립
	07.25	증권업 본허가 취득
	07.30	영업 개시
2009	08.26	인수업, 선물업 인가 취득
	12.16	유상증자
2011	06.07	자산관리 브랜드 Orda(오르다) 런칭
2012	02.13	CME 야간선물 거래 시스템 출시
2015	06.24	KB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
2016	06.21	최대주주 변경(이니티움2016)
	06.22	임태순 대표이사 취임
2017	01.01	케이프투자증권 사명 변경
	02.02	2016년 금융감독원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
	02.03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04.10	전문사모집합투자금융업 등록

케이프투자증권 회사 개요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이니티움2016(주)	28,000,000주	82.35%	최대주주
엘케이앤컴퍼니(주)	1,767,040주	5.20%	-
우리사주조합	673,700주	1.82%	-
기 타 주 주	3,294,360주	10.63%	-
합 계	34,000,00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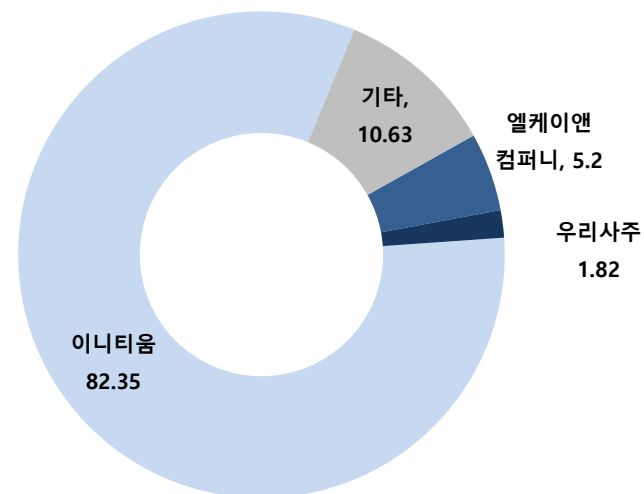


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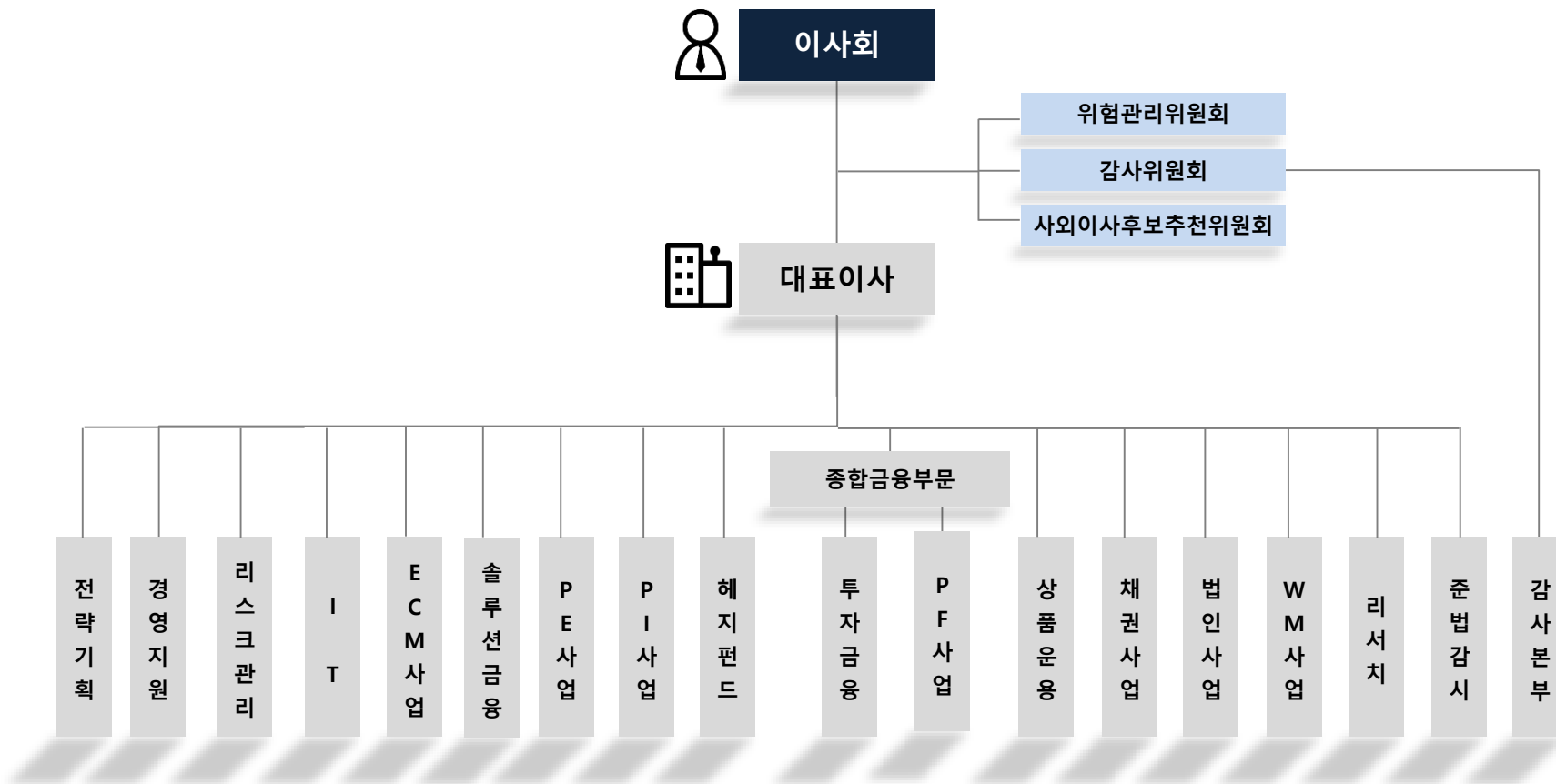
(단위 : 원, %)

회사명	출자가액	보유비율
케이프이에스기업인수목적(주)	20,000,000	0.66
(주)화아투자자문	120,000,000	100.00
(주)카비로스투자자문	206,846,595	63.64

■ 이니티움 ■ 기타 ■ 엘케이앤컴퍼니 ■ 우리사주



조직도 (2018.09.30기준)



부문1, 본부 18, 지점 1, 팀 35

주요 사업영역

IB/PF

- 주요사업: 인수 (회사채, 증자, IPO), 금융자문
- 주요고객: 일반기업 (상장, 비상장), 금융기관, 건설사, 시행사
- 수익: 인수 수수료, 주관 및 자문 수수료, 이자수익, 투자 차익

상품운용

- 상품: 국공채, ETF, 주식, 공모주 및 펀드, 코스피 선물·옵션
- 수익: 운용수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위탁중개

- 상품: 주식, 채권, 선물·옵션
- 주요고객: 국민연금 등 기관, 개인
- 수익: 중개수수료



주요 이슈

17.04.10 전문사모집합투자금융업 취득

케이프투자증권은 헤지펀드 사업을 통해 기존 IB(기업금융)와 PI(자기자본 투자)사업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신사업 동력을 마련하고, IB전문 특화 증권사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17.02.03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케이프투자증권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에 따라 그 동안 축적된 기존 IB업무는 물론, 비상장 회사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투자를 강화하여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Private Market 확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17.02.02 2016년 컴플라이언스 대상 수상

케이프투자증권은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 거래소 주관 2016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7.01.02 케이프투자증권 상호 변경

케이프투자증권(옛, LIG투자증권)은 사명을 공식 변경하였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펀드를 매개로 하는 IB(기업금융)와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사업 역량을 강화한 특화증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 준수 현황

(2018.09기준)



케이프투자증권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경영진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수립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을 아래와 같이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강령 제정

-

이사회 구성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김병주, 허노중, 유준열)

이사회·운영규정의 작성

이사회 규정 제정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분기 1회 '정기이사회' 개최

회사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감사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3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확한 인증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임원 인증

요약 연결 재무상태표



제11기 2018년 09월 30일 현재
 제10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09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1 기 3분기		제 10 기		제 9 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I. 자 산	1,936,511	100	1,166,446	100	1,307,081	100
1. 현금 및 예치금	189,071	9.8	88,540	7.6	51,398	3.9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77,986	50.5	729,522	62.5	971,333	74.3
3. 매도가능금융자산	0	0.0	34,217	2.9	30,791	2.4
4. 관계기업투자	3,001	0.2	3,996	0.3	36	0.0
5. 대출채권	225,892	11.7	246,307	21.1	217,010	16.6
6. 유형자산	2,076	0.1	2,115	0.2	857	0.1
7. 무형자산	5,692	0.3	4,967	0.4	4,744	0.4
8. 이연법인세자산	1,366	0.1	0	0.0	0	0.0
9. 기타자산	531,426	27.4	56,782	5.0	30,912	2.3
II. 부 채	1,711,872	100	953,517	81.7	1,103,640	84.4
1. 예수부채	153,002	8.9	175,770	15.1	218,579	16.7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241,957	14.1	0	0.0	0	0.0
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0	0.0	61,487	5.3	320,488	24.5
4. 차입부채	907,083	53.0	639,620	54.8	527,711	40.4
5. 확정급여부채	480	0.0	315	0.0	369	0.0
6. 충당부채	488	0.0	0	0.0	0	0.0
7. 당기법인세부채	3,580	0.2	1,806	0.2	834	0.1
8. 이연법인세부채	0	0.0	593	0.1	830	0.1
9. 기타부채	405,283	23.7	73,926	6.2	34,829	2.7
III. 자 본	224,639	100	212,929	18.3	203,441	15.6
지배주주소유주지분	224,533	99.9	212,815	18.3	203,321	15.6
1. 자본금	170,000	75.7	170,000	14.6	170,000	13
2. 자본잉여금	121	0.1	12	0.0	0	0.0
3. 자본조정	-1,410	-	-1,410	-0.1	-1,340	-0.1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5)	-	2,161	0.2	3,013	0.2
5. 이익잉여금	55,928	24.9	42,052	3.6	31,648	2.4
비지배주주지분	105	0.1	114	0.0	120	0.0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제11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9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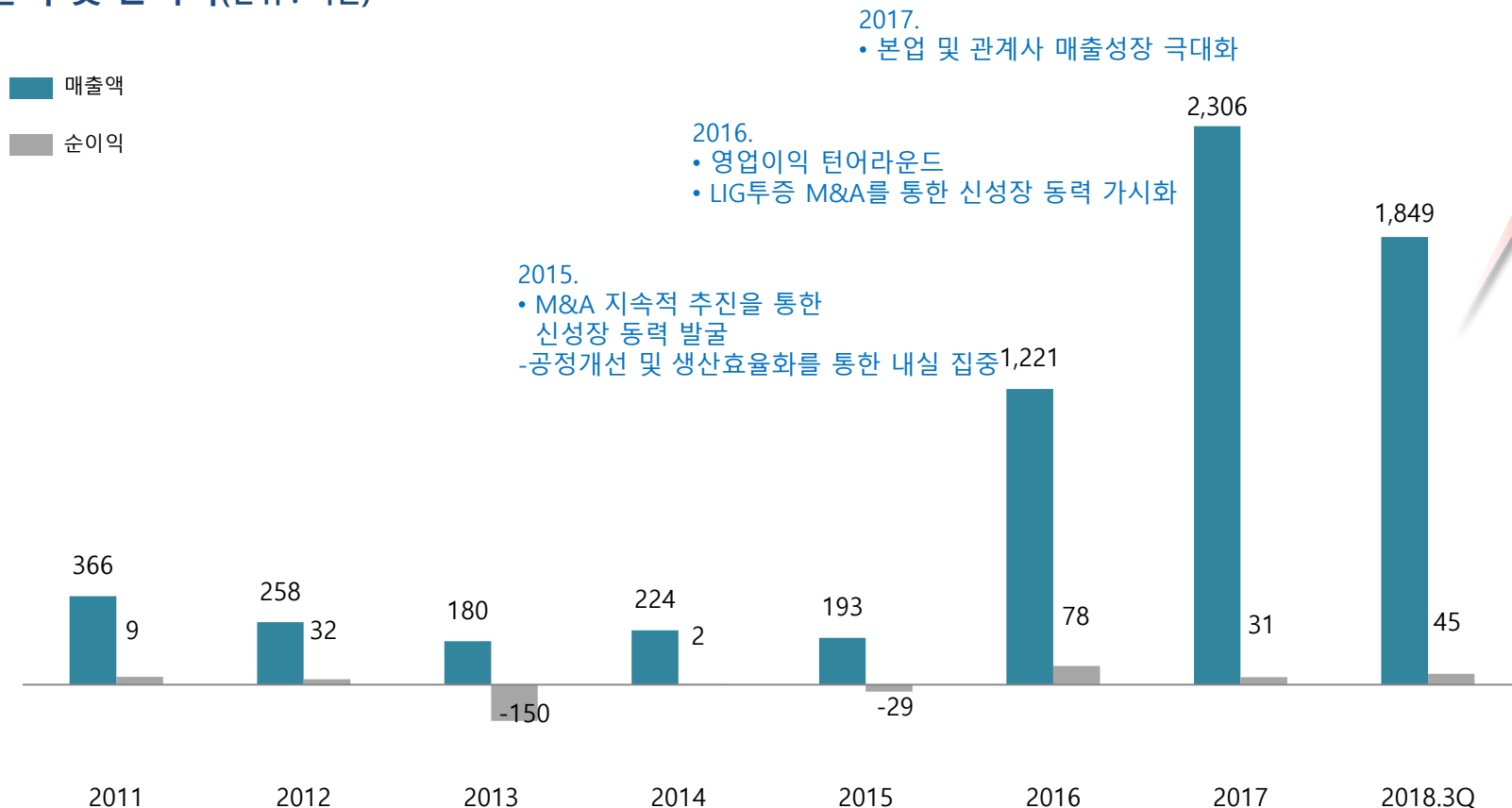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1 기 3분기	제 10 기 3분기
I. 영업수익	164,961	156,115
1. 수수료 수익	36,738	45,100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이익	63,876	41,808
3. 파생상품 거래이익	35,189	46,599
4. 이자수익	23,739	22,393
5. 기타	5,418	215
II. 영업비용	147,666	142,097
1. 수수료 비용	3,049	5,087
2. 금융상품 평가 및 처분손실	39,564	45,096
3. 파생상품 거래손실	41,884	36,847
4. 이자비용	14,435	10,721
5. 판매비와관리비	48,066	44,133
6. 기타의 영업비용	667	213
III. 영업이익	17,295	14,019
IV. 영업외손익	503	210
V.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	17,797	14,228
VI. 법인세비용	3,471	3,430
VII. 당기순손익	14,326	10,798
1. 지배주주소유주지분당기순손익	14,328	10,800
2. 비지배주주지분당기순손익	-2	-2

매출 및 이익 성장 전망

- 본업 시장 구조조정 및 턴어라운드로 매출 지속 성장
- 증권사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관계사 해외진출 기대

매출액 및 순이익(단위 : 억원)



회사 위치 및 향후 전망

- 회사 부지 41,000여평
- 향후 입지 조건을 활용한 다각적인 개발 계획 수립 검토
- 2016년 자산재평가(토지) : 987억원

회사 위치

